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WELCOME  
WORSHIP  
DISCIPLESHIP

[ Matthew 11:28-30 ]

### 주일예배 및 모임안내

주일1부예배	본당	9:00 am
주일2부예배	본당 & 라이브	11:00 am
Youth	아가페홀	11:00 am
유초등부	아가페홀	11:00 am
영유치부	본당 지하	11:00 am
화요소망학교	본당 지하	11:00 am
수요일예배	본당	7:00 pm
AWANA (수)	아가페홀	7:00 pm
새벽예배 (화-토)	본당	6:00 am
청년부예배 (토)	아가페홀	12:30 pm

###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직 목사	은퇴장로	김대희 배상진 임병갑 장기림 백근조
방송/청년	오정훈 목사		이덕홍 이창진 윤순화 오귀록
소망학교	이신웅 전도사	찬양인도	황규식 공석우
중고등부	문강한 전도사	지휘자/서무	박은실
유초등부	청빙중	반주자	노윤실사모 김은화 이화니
영유치부	김성은 사모	번역/통역	김예람 이화니 송명신
시무장로	백형수 윤순기	방송	조준한 Daniel Sewell 조희수

### 열방을 섬기는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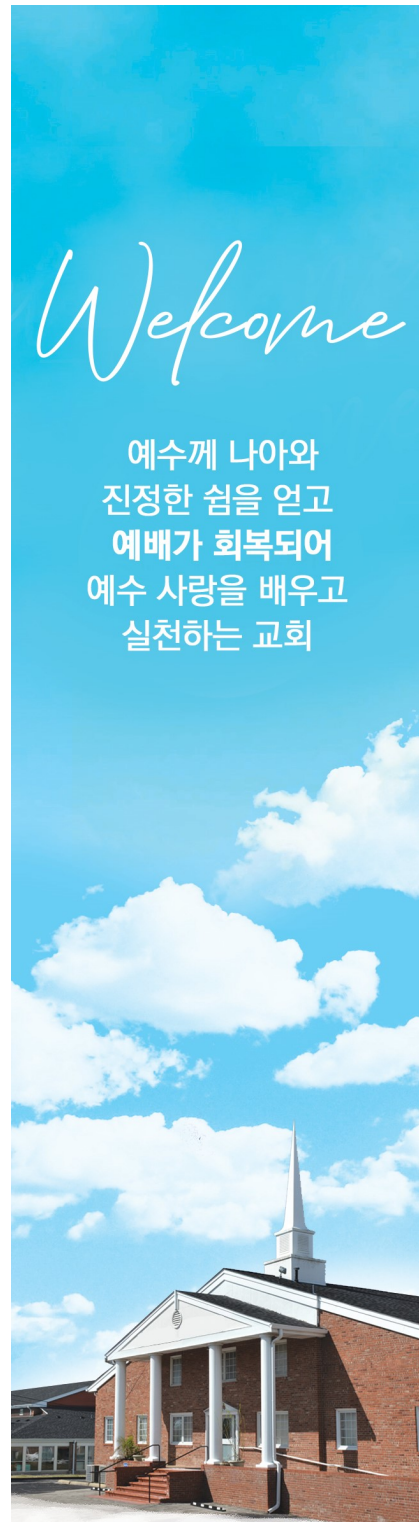
태 국	배중원	요 르 단	설총호/전경원
중 국	이주애	도미니카	이광호
케냐	이영규	아파치인디안	강원용
칠레	황신재	키르키즈스탄	바나바/다비다
모로코	김영목		



###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of St. Louis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Church (314) 275-2661 Email HopeSTL@gmail.com  
www.HopeSTL.org Agape Hall (314)786-5018



Welcome

예수께 나아와  
진정한 심을 얻고  
예배가 회복되어  
예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10.29.2023

고린도의 소명자들 (4):  
온전함

1부 9:00 AM 2부 10:45 AM

LIVE

# 주 일 예 배

## SUNDAY WORSHIP

경배와 찬양	찬양팀 (1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기원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서교독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Ephesians 4장
참회의 기도	이사야 Isaish 53:5
찬송	찬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같이
기도	오귀록 장로
광고	인도자 / 김성직 목사
봉헌, 봉헌송	찬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2:6-16, NT p 265
말씀	<b>고린도의 소명자들 (4): 온전함</b> / 김성직 목사
Sermon	The Called in the Corinthians (4): The Maturity
성찬식	찬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결단의 찬양	찬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 축도	김성직 목사

\* 일어서서 Please stand up

적 주권>을 믿는다.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과 우리 인간의 조물주임을 믿으며, 그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세상과 인류와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만물이 그의 전제적 의지대로 운영됨을 의심 없이 믿으며,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은 조물주인 성삼위 하나님을 내 생명의 근원으로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한다. 나의 의지나 영광을 고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둘째,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는다.

개혁주의 신앙가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정확하고 절대적으로 무오한 계시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믿는다. 성경 66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인간의 구원을 말하며, 구약의 때나 신약의 때나 모두 하나님의 언약백성을 하나님은 같은 방법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 구약이 없이 신약이 없으며, 반대로 신약이 없이 구약은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구약만 수용하는 유대교는 잘못이며, 반면에 신약만 인정하는 이른바 Apostolic New Testament Church(신약 사도교회)는 성경적이지 아니라고 믿는다. 어거스틴(Augustine)의 말대로 “신약은 구약 속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 나타나 있다”고 믿는다. 성경의 어느 부분도 덜 중요하거나 더 중요한 곳이 없으며, 모든 성경은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 목회자컬럼 // 김성직 목사

온전케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으로 믿으며, <자유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처럼 성경의 내용을 취사선택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을 절대적으로 생활화 한다>

개혁주의 신앙인은 성경을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그렇게 실제 생활한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믿는 도리>만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끝나게 아니라, 이어서 반드시 <생활 강령>을 가르쳐 주신다. 절대적인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성경은 진리와 비진리를 분간하는 시금석이 된다. 성경이 없이는 진리를 알 수 없다. 그리스도 자신이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이다(요 14:6). 그러므로, Scotland나 Holland의 개혁주의자들은 성경대로 따라 살고자 했다. 오늘날의 교회가 영력( )을 상실하고 그 많은 <영적 각성 운동> 또는 <성령 운동>을 하면서도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성경대로 실제 내가 살아내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아담이 그러했듯,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실제 삶에서의 순종을 가장 요긴하게 가르치신다. <사랑>과 <순종>은 동의어이다.

(출처: 툴립선교회, 김명도 목사)

!

## 종교개혁 기념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Reformation Day)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의 반박문을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루터가 로마 카톨릭교회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고, 교황의 권위보다는 오직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며,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얻게 되는 이신칭의를 주장하여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율리우스력의 10월 31일에 해당합니다. 일부 국가와 독일의 개신교 신자가 많은 일부 주에서는 이 날이 휴일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을 정신을 따르기 위하여 세계의 교회에서는 10월 31일 직전 주일을 오늘처럼 종교 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벌써 500년이 훌쩍 지난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전에 살펴봤었던 “개혁주의 신앙”을 또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 반석 위에서 함께 “하나의 신앙”으로 올바르게 세워져나가는 건강한 한인소망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글은 ‘틀립선교회’의 김명도 목사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Reformation Day)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

의 반박문을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루터가 로마 카톨릭교회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고, 교황의 권위보다는 오직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며,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얻게 되는 이신칭의를 주장하여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율리우스력의 10월 31일에 해당합니다. 일부 국가와 독일의 개신교 신자가 많은 일부 주에서는 이 날이 휴일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을 정신을 따르기 위하여 세계의 교회에서는 10월 31일 직전 주일을 오늘처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벌써 500년이 훌쩍 지난 종교 개혁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전에 살펴봤었던 “개혁주의 신앙”을 또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 반석 위에서 함께 “하나의 신앙”으로 올바르게 세워져나가는 건강한 한인소망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글은 ‘틀립선교회’의 김명도 목사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I. 개혁주의 신앙의 철학 (혹은 원칙)

<개혁주의 신앙>에는 세 가지 원칙 혹은 철학이 있다.

첫째,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 성서교독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Ephesians 4 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다같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고린도의 소명자들(4): 온전함 (고전 2:6-16)

< 본문 속으로 >

1.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6절)
  
2.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9-10절)
  
3. 소명자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받았나요? (12절)
  
4. 하나님의 영을 받은 소명자는 이어서 무엇을 알게 되나요? (12절)
  
5. 하나님의 영을 받은 소명자는 누구의 마음을 가지게 되나요? (16절)

SATURDAY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2. 담임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주셔서, 귀한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 능력있게 전하고 주님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게 하소서.
3. 모든 리더십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반석 위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SUNDAY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1.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

안성실 권사님: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배상진 장로님: 노환으로 힘든 중에 계십니다.

송명신 자매님: 계속 치료중이십니다

장길자 권사님: 협착증으로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MONDAY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 오직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께서 옳다 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 2.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점점 맺히게 하소서.
- 3.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반면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소서.

3.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THURSDAY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 1.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소서.
- 2. ‘코로나19’을 지나가며, 각 나라와 민족들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 3.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흠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FRIDAY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소서

- 1.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 2.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교회와 민족과 맡겨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 3. 흔들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뜻을 정하게 하소서.

<생활 속으로>

1. 소명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찾아서, 맡겨진 오늘을 그 기쁜신 뜻대로 주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갑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때론 나의 주권을 주장하지는 않는지, 또 내 인생의 목적은 진정 무엇인지, 혹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까먹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세요.

2. 소명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회개와 감사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동역자들과 함께 나부터 온전히 개혁해 나갑니다.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어느 정도 보이는지, 혹은 육체의 일들이 더 나타나고 있는건 아닌지, 은혜 안에 살면서 회개와 감사가 내게 얼마나 있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개혁하기보다, 누구 가르칠 생각만 하는건 아닌지, 점검해보세요.

TUESDAY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 1.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 2. 하나님만이 중심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소서.
- 3. 성경적 가정의 모범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순응하게 하소서.

WEDNESDAY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 1. 주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에, 주께서 부여하시는 은혜와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 2.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으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

10/29		11/5	
대표 기도	오귀록 장로	대표 기도	윤순기 장로
교회 안내	김혜연 자매	교회 안내	김동한 집사
번역/통역	이화니 자매, 송명신 자매	번역/통역	김예람 자매, 송명신 자매
애찬 담당	요르단 구역	애찬 담당	중국 구역
교회 청소	키르키즈스탄 (10월)	교회 청소	케냐 구역 (11월)

향기로운 예물 10/22/2023

주일	\$572	건축	\$0	주일학교/유스	\$5
십일조	\$4,598.33	첫열매	\$0		
감사	\$570				
선교	\$0				
구역선교	\$100			현금총액	\$5,845.33

현금 외 수입금

선교 바자회 수입 \$20

입금총액 \$5,865.33

교회현금 KHPC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온라인 HopeSTL.org/online-donation

1. 성찬식

오늘은 예배 중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모두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2. 종교개혁 기념주일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개혁주의 신앙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3. 안수집사/권사 투표를 위한 임시 공동의회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진행합니다.

(1) 안수집사 후보: 김동한, 홍달표.

(2) 권사 후보: 김기홍, 김선아, 문춘자, 백영희, 성영숙, 손인자, 송계자, 신정자, 이명순, 이무연, 이정애, 정미자.

4. Daylight Saving Time Ends

다음 주일(11/5)에 끝납니다. 시간 변동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새가족 환영: 다음 주일(11/5)

5PM 본당 지하에서 있습니다. 교회 등록 하시고 새가족 환영에 아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참석 여부는 구역장님들이나 새가족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주세요. (314-600-8062)

6. 정기당회

다음 주일(11/5) 1PM 회의실

7. 추수감사절 당일

추수감사절 당일(11월23일 목요일 5PM) 외로우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담임목사님 가정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니까 그냥 오셔서 함께 식사교제 나누시면 됩니다. 미리 담임목사님이나 사모님께 말씀해 주세요. 단, 단순히 도와주러 오시지는 마세요. 가족과 함께 하는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행사

10월 29일 (주)

성찬식  
공동의회  
(안수집사/권사)

11월 5일 (주)

정기당회  
Daylight Saving  
Time Ends  
새가족환영  
@5PM

11월 19일 (주)

추수감사주일

11월 23일 (목)

추수감사절  
담임목사님과  
함께 하는 디너  
@5PM

기도구역 도미니카 구역 (윤순화 장로 정미자 집사)과 이광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가정 Daniel Sewell (최상자 집사) 집사님 가정 위해서